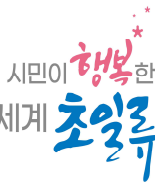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9월 6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 담당자	주광식 ☎440-8514 정승혜 ☎440-556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해 시민 불안감 잡는다

- 매일 표본검사 실시 후 결과 홈페이지서 공개 -
-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 대상 -

인천시가 수산물 섭취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불식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24일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된 직후부터 방사능 매일 표본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ecopia/index>)를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2021년 4월부터 매일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조사를 했으며, 올해 8월 3일 수산물 현장검사소 개소 후 검사 확대 논의를 통해 8월 24일부터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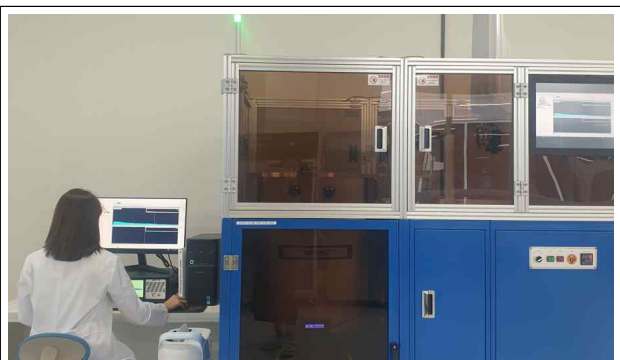
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 장비 3대를 모두 수산물 방사능 분석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방사능 장비를 추가 확보해 장기간에 걸친 오염수 방류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불안감과 상인들의 생계 우려를 공감하고 선제적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수거



방사능 분석